

장기 불황·이상기후...제조업·농업 고용시장 ‘공공’

호남통계청 4월 고용동향 발표 광주 9개월·전남 20개월 연속 ↓ 상용직 줄고 임시·일용직 증가

장기 불황에 빠진 경제 상황을 나타내듯 지난 4월에도 광주·전남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었다.

각각 9개월·20개월째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주력 산업인 제조업 불황을 보였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종사자도 크게 줄었다.

14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취업자 수는 77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1만 5,000명) 감소했다.

전년 대비 광주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지난해 8월부터 9개월째다.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광공업에서 무려 5,000명(-4.6%) 감소하면서 전체 하락세를 이끌었다.

농림·어업(-5,000명·-23.0%), 전기운수통신금융업(-4,000명·-4.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00명·-1.1%) 등 감소도 뚜렷했다.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5,000명(19.1%), 임시근로자는 2,000명(1.7%) 각각 증가했으나 상용근로자는 7,000명(-1.6%) 사라졌다. 고용 상태가 다소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취업시간대별로 36시간 이상·미만 취업자 각각 1만 1,000명(-1.8%)·6,000명(-3.1%) 줄었다.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전년비 0.2시간 짧아진 38.7시간이다.

같은기간 전남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0.8%(8,000명) 감소한 100만 8,000명이다. 102만명을 기록한 지난 2023년 9월부터 꾸준히 감소해왔다.

산업별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7,000명·4.1%), 광공업(6,000명·6.0%), 전기·운수·통신·금융업(2,000명·2.7%) 등에서 늘었으나 2만명(-9.6%)이 ‘농림·어업’에서 떠났다.

전남의 지속된 고령화에도 지난 4월 낮은 한파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판단된다.

전남에서도 임시근로자가 1만 3,000명(6.7%) 증가한 반면 상용근로자는 2만 3,000명(-5.6%) 줄어들었다.

36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는 5,000명 늘고 통상 전일제근로자로 분류되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만명(-2.8%) 감소한 68만 9,000명에 불과했다.

주당 평균시간은 37.0시간으로 지난해보다 0.6시간 단축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1차산업 분야에서는 이상기후 영향이 컸다. 제조업 상황은 최근 반도체를 빼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반도체는 취업 유발계수가 낮다보니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 다”면서 “미 관세 영향과 관련해서는 당장 4월을 두고 분석하기 어렵고 산업활동동향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승현 기자



농협광주본부는 14일 광주시 5개 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촌사랑 우리농산물 꾸러미’ 400개를 전달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농협광주본부 ‘우리농산물 꾸러미’ 400개 전달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14일 광주시 5개 구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촌사랑 우리농산물 꾸러미’ 400개(1,6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지난 4월 범농협 광주본부 영농지원발대식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광주시

및 5개 구와 협의회 나눔 대상을 선정해 진행됐다. 꾸러미는 동구 32가구, 서구 72가구, 남구 68가구, 북구 136가구, 광산구 92가구 등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배송되어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농촌사랑 우리농산물 꾸러미 나눔사업’은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도시와 농촌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호 본부장은 “농산물 꾸러미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광주본부는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광주지역인자위, 지역 인력양성기관 세미나

지역 가전산업 동향 공유 우수 직업훈련 사례 컨설팅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역 직업훈련기관을 포함한 인력양성기관들을 대상으로 “2025년 광주지역 인력양성기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등 광주지역 직업훈련기관 담당자 70여명

이 참석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정기 단장의 ‘광주 가전산업 동향과 인력양성전략’ 특강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베스트 훈련기관 운영사례 컨설팅’을 제공해 인력양성기관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후형 사무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13년 출범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매년 지역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을 개발해 중소기업인력난 해소와 고용률을 제고하는 광주지역 인력양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문의는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062-350-5825-8)로 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

전남 조합장·전남도, 수산업 협력 정책토론

여수수협서 발전 방안·현안 논의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와 전남 관내 수협, 전남도는 최근 여수수협 대회의실에서 ‘수산업 발전방향 논의 및 협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과 현장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강진, 목포, 신안, 영광, 완도, 금일, 완도소안, 진도, 해남, 장흥, 거문도, 고

흥, 나로도, 여수, 전남동부, 근해유망, 전남정치망, 제3·4구잡수기, 서남해수어류양식, 전남서부어류양식, 민물장어양식, 근해안강망 수협 등 전남 지역 21개 조합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조합별 애로사항과 수산 현안,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공유하며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남도는 조합 현장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하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조합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에 이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소토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이 자리는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직전 전남조합장단 협의회 회장(신안군수협 조합장)과 총무(목포수협 조합장)에게 지난 2년간 수산업과 수협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도지사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조합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남도와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JCIA “DICM 공동관 참여 기업 찾습니다”

중동·북아프리카 최대 콘텐츠 행사 26일 접수 마감 총 5개 기업 지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JCIA)은 지역 우수 애니메이션 및 방송·영상 제작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2025 두바이 국제 콘텐츠 마켓(DICM)’의 ‘JCIA 공동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DICM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최대 미디어 콘텐츠 B2B 마켓이다. 올해 11월 4일부터 이틀 간 열리며 콘텐츠 발표회, 판매, 투자, 배급 등이 이뤄진다.

지난해 DICM는 한국을 포함한 중동, 튀르키예, 러시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약 70개국에 참가했다. 행사에서 총 2,5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고 한국 기업들은 방송사, 배급사 등 해외 고객과 약 250회가 넘는 미팅이 성사됐다.

JCIA는 DICM에서 전남도 콘텐츠 기업이 중동 및 글로벌 콘텐츠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고 콘텐츠 고도화와 비즈니스 미팅 지원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JCIA 공동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선정된 5개 기업에는 △기업별 부스 △비즈니스 매칭 △기업별 1인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 △기업별 2인 숙소 등 행사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조건은 제작 완료된 국산 애니메이션 및 방송·영상 IP를 소유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으로 사업장(본사 또는 지사) 소재지가 전남도에 등록됐거나 역외 기업의 경우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전남 소재지로 본사가 이전돼야 한다.

희망하는 콘텐츠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기간 내에 담당자 이메일(sy2094@jci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홍승현 기자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보리굴비정식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다미정’에 오시면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씩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